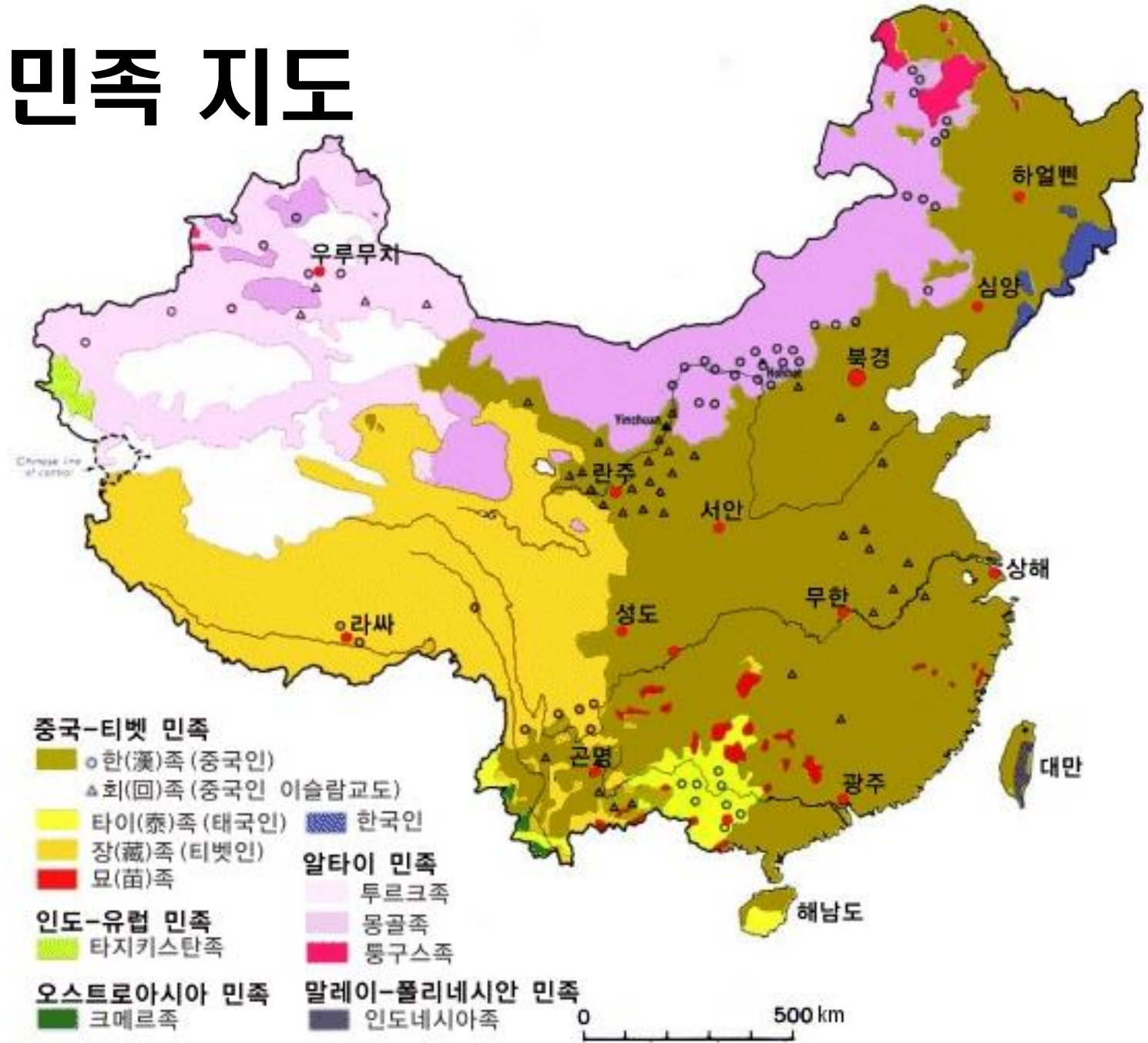


소수민족 지도



중국의 주변역사 왜곡 사례

지역	연구착수 시기	주관부서	왜곡 내용 및 목적
티베트	1966년	중국 장학 연구 중심	티베트는 언제나 중국의 일부. 독립운동 차단
신장	2002년	사회과학원 변강사 지 연구 중심 내 신장 발전 연구팀	기원전 60년 부터 중국이 줄곧 통치. 독립운동 차단
몽골	1995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몽골은 중국 영토. 영토분쟁 대비
베트남	1997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고대 베트남인 남비엣은 중국의 지방정권. 영토분쟁 대비

중국 역사왜곡 서남·서북·동북공정 주요 내용

중국은 각종 역사공정을 통해 주변국가의 역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민족 역사의 상당부분을 중국사에 편입시킨 동북공정은 중국이 '중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각종 역사공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무리 단계의 작업이다.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서북공정

- 한나라 때부터 신장지역이 월씨족, 강족, 흉노, 한족이 섞여살던 다민족 지역이다.
- 한나라가 BC 60년 신장에 서역도호부를 설치한 이후 중국 역대왕조가 신장을 관할.

몽골에 대한 연고권 주장

- 중화의 관점에서 칭기스칸도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한 사람이다.
- 몽골의 영토는 중국의 영토이다. (몽골이 현재 몽골공화국과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로 분할되어 있어 향후 영토분쟁 가능성에 대비)

고구려사에 대한 동북공정

- 고구려족은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이며 고구려는 중국역사의 일부이다.
- 1. 고구려를 세운 사람들은 중국민족에 뿌리를 둔.
- 2. 고구려의 건국장소는 중국 영토의 내부였으며 정치적으로 중국의 통치를 받았다.
- 3. 고구려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종속국이다.



티베트에 대한 서남공정

- 티베트는 자고이래 중국의 일부이라고 주장. 7세기초 국가를 형성한 이후 원나라와 청나라 때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국가형태를 유지해온 티베트의 역사를 말끔히 지움.

베트남사도 중국의 것

- BC 2879년 건립된 반랑왕국을 촉의 왕자 반이 굴복시키고 아우락 왕조를 건립.
- 남비엣(南越)은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 남방지역에 할거한 지방정권이다. (베트남이 후세에도 광둥, 광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한 명분쌓기 일환)



중국의 소수민족 분류 지역

- 면적 : 160만km²
- 인구 : 2181만명
- 갈등 사례 : 2009년 3월 우루무치시 민족갈등 유혈사태(197명 사망), 2012년 2월 카스시 인근 공안·위구르인 충돌(최소 12명 사망)

- 면적 : 123만km²
- 인구 : 284만명
- 갈등 사례 : 2008년 3월 라싸 유혈사태 (망명정부 추산 약 200명 사망), 2009년 이후 약 80명 분신 (18차 당 대회 전후 15명 분신)

- 면적 : 118만km²
- 인구 : 2470만명
- 갈등 사례 : 2011년 5월 시위 유목민 사망 사건으로 몽골족 대규모 시위



소수민족과 관련된 시진핑의 말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은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안정, 핵심이익을 해치는 세력이다."

(2012년 2월 터키 방문)

"중국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 이 없었고, 새로운 티베트도 없었다. 달라이 라마 집단과 국제 적대 세력의 분열활동을 좌절시켜야 한다."

(2011년 7월, 티베트 해방 60주년 축하 대회)

"소수의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일에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간섭하고 있다."

(2009년 2월 멕시코 방문)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 만천성국가삼림공원(滿天星國家森林公園)

[자료 8] 선녀봉으로 올라가는 입구의 대문 (* 좌로부터 호랑이, 응녀, 곰의 조각상)



[자료 10] 선녀봉 올라가는 길목에 보이는 곰 조각상. (* 발아래 마늘과 썩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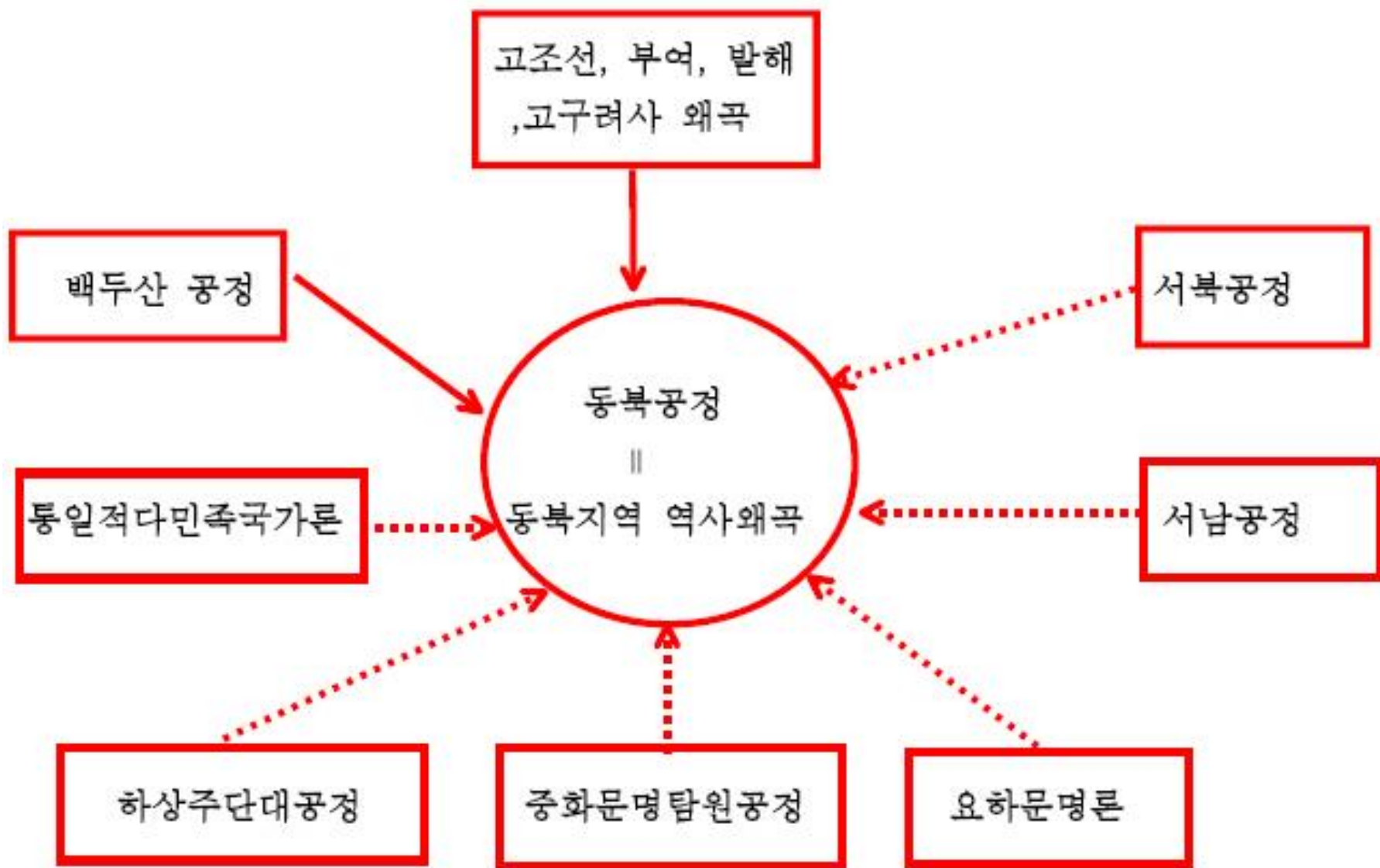


[자료 11] 선녀봉 꼭대기에 세워진 응녀조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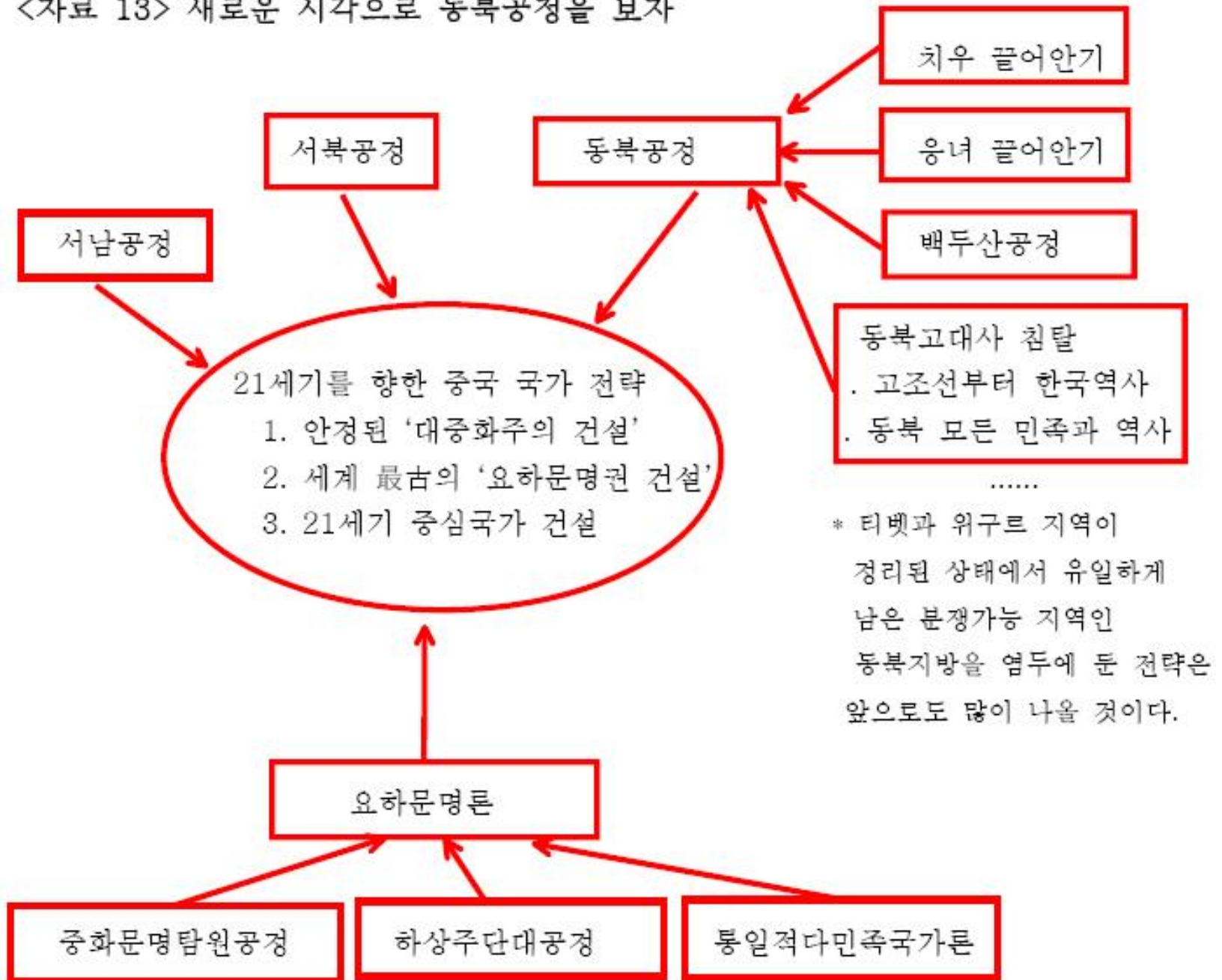
* 오른손에 마늘을 다른 왼손에는 썩 * 높이 18m 무게는 52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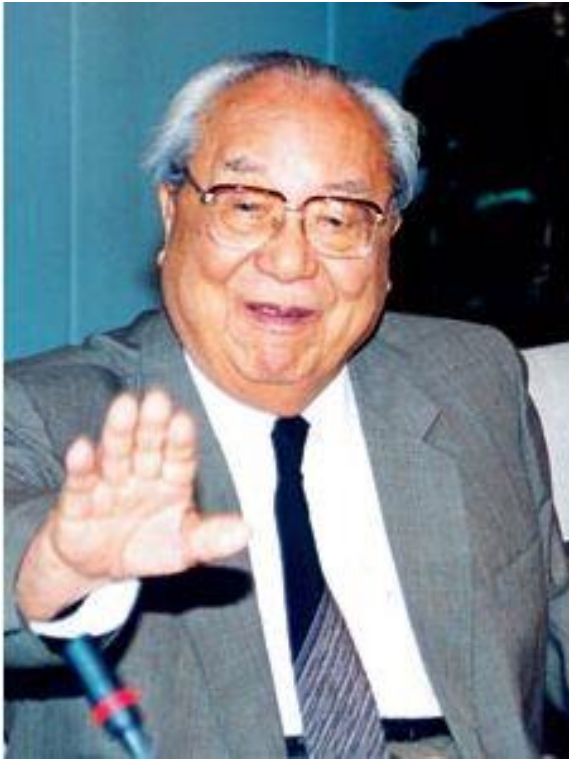
<자료 12> 기존의 동북공정을 보는 시각



<자료 13> 새로운 시각으로 동북공정을 보자



페이샤오통 费孝通 (1910-2005)



- 사회학, 인류학, 민족학자
- 한족, 강소성 출신
- 중앙민족대학 인류학과 교수
- 북경대학 사회학과 교수
- 제8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 인민정치협상회의 제6회 전국위원회 부주석

중화민족 다원일체론



- 한족과 소수민족간에 역사와 문화가 이질적인 상황에서 나온 교육지책의 결과
- 56개의 민족이 중화대가정(中華大家庭)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 다민족 통일국가
- 하나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 면적: 166만km²(중국 영토의 6분의 1)
- 인구: 약 2천만(위구르족 약 940만)
1949년 중국 통치 뒤 한족 인구 6%서
41%로 증가

- 인구 20,309,181 명(2006년 기준)
- 신장은 크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으로 면적은 160만km²가 넘고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
- 인구의 절반 가량은 위구르족(45%)이지만, 한족(40%)과 카자흐족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그밖에 회족 또는 둥간족 · 키르기스족 · 몽고족 · 타지크족 · 우즈베크족 · 타타르족 · 시버족 · 다우르족, 투르크멘족, 만주족 등도 있다. 이 밖에도 18세기에 들어온 러시아인도 살고 있다.
- 종교는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으나 일부는 샤머니즘과 라마교를 믿으며, 러시아인은 대부분 정교회 신자이다.

- 주로 산과 사막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엄청난 석유 부존량과 천연가스 등 잠재된 자원으로 인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물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4개국 이외에도 몽골,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인도 등 총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안보상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 기원전 59년 한나라가 서역과 교역로를 트기 위해 이 지역을 장악한 흉노를 제압한 후, 서역도호부(西域都護府)를 설치하고 신강 남부 지역을 지배하게 되어 처음으로 중국 중원왕조의 판도에 들어갔다. 이후 당나라는 안서사진(安西四鎮)을 설치하여 통제하였다.
- 13세기 칭기즈칸에 의해 정복당하여 몽골족의 통치를 받다가 몽골족이 물러간 1397년 이후 독립적인 상황을 유지하던 이 지역은 1755년 청에 정복되어 1862년까지 청의 지배를 받다가, 1863년에는 청을 물리치고 1864년에 독립 왕국을 세워 오토만(오스만) 제국, 제정 러시아 및 영국의 승인을 얻기도 하였다.

- 그러나 러시아의 이 지역 진출을 경계한 영국의 지원을 받은 청이 1876년 재차 이 지역을 점령하고 1884년 청의 건륭제에 의해 '새로운 영토' 또는 '새로운 변경(邊境)'을 의미하는 신강성(新疆省)이란 명칭으로 중국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었다.

- 1933년 신강 남서부의 카슈카르(喀什)에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공화국(East Turkīstan Islamic Republic)' 건국을 선포하였으나 3개월 만에 좌절되었으며, 이어 1944년 11월 12일 이리(伊犁) 지역에서 위구르인이 주축이 되어 봉기를 일으켜 재차 '동투르키스탄 인민공화국(East Turkīstan People's Republic)'을 건립하고 약 6년간 독립적인 정권을 운영하였다.

- 이후 1949년 8월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의 지도자 5명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북경에 가던 중 의문의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고, 2개월 후인 1949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강 지역에 진주를 하면서 중국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통제에 들어갔으며, 7년 후인 1955년 10월 1일에 신강위구르 자치구가 설치되었다.

-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인접한 중앙아시아의 다른 투르크계 이슬람 민족들이 중국 내 위구르족을 제외하고 모두 민족국가를 건립하면서 더욱 자극을 받아 집단 시위 등을 통한 의사표출은 물론 더 나아가 테러와 무장투쟁 등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레비아 카디르



- 1947년 출생
- 세탁업을 시작으로 백화점과 무역회사를 경영, 중국에서 일곱 번째 부자가 되었다.
- 1992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선출
- 1997년 신강의 이닝 지역에서 중국군이 유혈 진압한 사건을 접한 뒤 "위구르의 투사"가 됨.
- 2006년 세계 위구르인 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됨.

우루무치



위구르 이슬람교 사원



위구르 이슬람교 사원 광장



위구르 포도



위구르 멜론



위구르족 가축



위구르족 가축시장



위구르족 가옥



위구르족 가옥



신강 위그르족





PHOTOTIME

© 时代图片 www.phototime.cn

티베트(西藏) 자치구 개황

인구 274만명(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최소)

면적 122만8400km²(전국 8분의1, 한반도의 약 6배)

1인당 GDP(국내총생산) 940 US달러(전국 최하위권)

문맹률(만15세 이상) 47.55%(전국 최고)

티베트족 인구 비중 93.94%

지하자원 -석탄 크롬 금강석 마그네슘 철 등 광물자원70여종
-수자원 보유량(2억kW)으로 중국 전체의 30%
-삼림 축적량(14억m³) 중국 내 5위



- 인구 20,309,181 명(2006년 기준)
- 티베트는 고산 지대이자 거친 지리적 환경 때문에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 주민의 대부분은 티베트족으로 2000년에 전체 인구의 92.8%를 차지했다. 한족은 2번째로 많은 민족으로 6.1%를 차지했으나 최근 10년간 상당히 늘어났으며 특히 2006년 칭짱 철도의 개통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 일부 먼바족, 뤼바족, 몽고족도 거주한다. 주민의 대부분이 티베트어를 사용한다. 대부분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다.

- 7세기 중엽에 송찬간포(松贊干布)가 티베트 고원 일대를 통일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당나라를 위협하자 당 태종은 문성공주(文成公主)를 송찬간포 왕에게 시집을 보내어 화친조약을 맺기도 하였다.
- 서기 13세기에 몽골군이 티베트 전역을 장악하면서 이후 중국 중원 지역까지 통치한 원나라의 통제를 받았다.
- 16세기 들어 또 다른 이민족인 만주족이 건립한 청나라에 의하여 중원 지역과 티베트 지역 등이 재차 군사적으로 정복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양측 간의 해석상 이견이 또 다시 반복된다. 티베트 분리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특히 청나라의 티베트에 대한 통제가 직접 통치가 아니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티베트가 당시 조선 등과 같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 티베트가 1950년 10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에 의해 '점령'당할 때까지 한 번도 중국의 영토인 적도 없고, 한족에 의하여 지배를 당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1912년 청나라가 망하자 티베트는 즉시 독립을 선포하고 외교와 국방에서 자주적인 기구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1934년 국민당 정부의 특사가 티베트의 중국 복속을 요구하였으나 자주를 내세운 티베트 당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처럼 1950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에 진공 시까지 약 40년간 티베트는 사실상 독립국가와 같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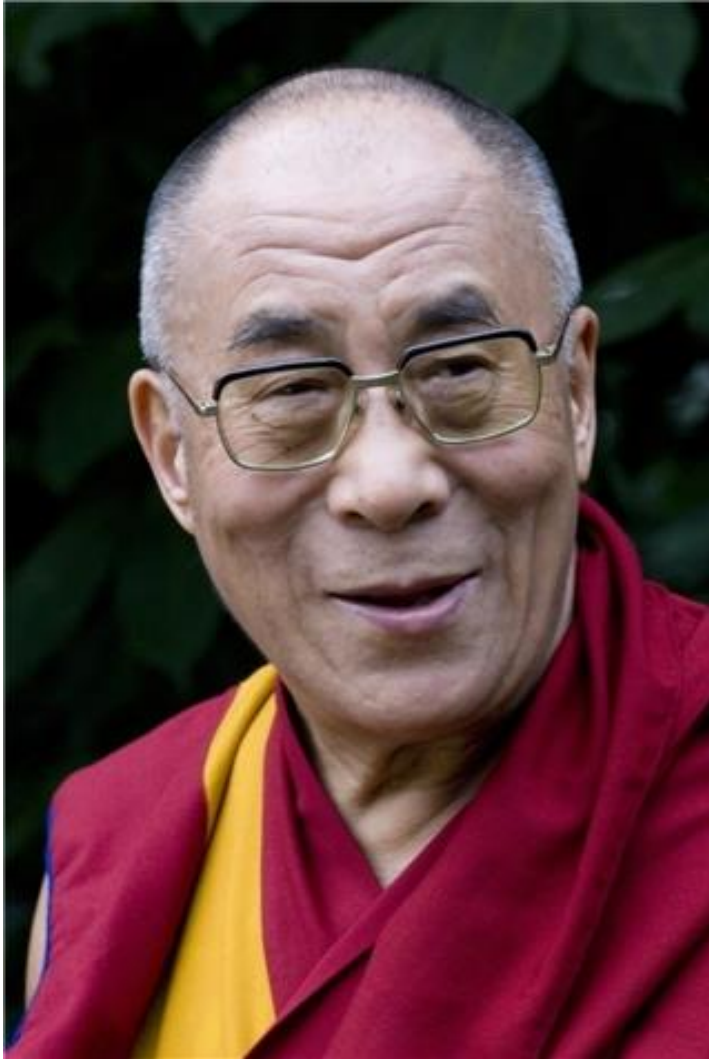
티베트 포달랩궁



포달랍궁



제 14대 달라이라마 ‘텐진가쇼’



- 1935년 출생
- 1940년 제14대 달라이라마로 즉위
- 1959년 티베트에서 반중국 반란이 일어나 12만 여명의 티베트인이 학살 당하고, 6천여 개의 사원이 파괴되자, 인도의 다람살라에 망명정부 세움
-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

1995년 당시 6세였던 판첸라마 '초에키 니마'



중국정부가 임명한 제11대 판첸 라마 '기알첸 노르부' 21세



2008년 티베트 반중국 시위

- 티베트 독립운동 49주년이 되는 2008년 3월 10일 티베트 승려 등 600여 명이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인 데 이어 3월 15일경 라싸[拉薩] 도심 라모기아 사원 인근에서 티베트 반정부 시위대가 중국 공안과 충돌하면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는 13명(2008년 3월 17일 기준)이었으나,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시위 과정에서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 사태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질서 회복을 위해 '인민 전쟁'을 선언하는 한편 티베트 망명 정부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지지 세력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중국 화난 지방 [광시좡족자치구]



광시 좡족 자치구 廣西壯族自治區

- 인구 44,660,437 명(2006년 기준)
- 청(淸) 나라에 이르러 광시성[廣西省]을 설치하였으며 1958년 3월 15일 광시좡족자치구가 되었다.
- 중국내 최대 소수민족인 좡족壯族(1,560만명)을 비롯 야오족[瑤族]· 먀오족[苗族]· 퉁족 등 36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 도시를 중심으로 한족이 자치구 전체인구의 62%를 점유하며 좡족은 소수민족 인구의 90%를 차지한다.

중국 화베이 지방 [네이멍구자치구]



내몽고 자치구 內蒙古自治區

- 인구 24,447,529 명(2006년 기준)
- 1947년 5월 1일 중국 최초의 성(省) 급 민족 자치구로서 네이멍구자치구가 설치되었다.
- 세 번째로 큰 행정 구역으로, 총 면적은 1,183,000 km²로 총 면적의 12%를 차지한다.
- 한족이 내몽고 자치구 주민의 80%, 몽고족들은 17%를 차지한다.
- 18세기 초에 청나라의 장려 하에 한족이 이주하기 시작해 20세기까지 계속되었다.

- 몽골족은 중국 내에서 민족구역자치를 최초로 실시한 소수민족으로 중국 최초로 1947년 5월 1일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가 성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 정식 성립되기 2년 5개월 전에 몽골족의 민족자치구부터 먼저 설치된 배경에는 중국의 국내 민족문제가 근대 몽골족의 민족독립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몽골족은 역사적으로 크게 외몽골 지역(현재의 몽골리아)과 내몽골 지역(현재의 내몽고자치구)에 나누어 거주하여 왔는데, 1912년 청나라가 망하면서 외몽골인들은 독립을 선포하였다.

-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중국은 외몽골 회복을 시도 하였지만, 이후 등장한 소련의 지원으로 1924년 외몽골에서 몽골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이후 1945년 중소간의 동의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이 재확인되었고, 중국 공산당 정부도 1949년 외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내몽골인들은 1912년 청 멸망 이후 약 40년간 국민당 정부와 지방군벌에 맞서서 자결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독립국가로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지는 못하고 중국의 자치행정구역으로 머물렀다.

- 중국 공산당은 1920년대에는 내몽골인의 '민족자결'과 '독립'을 인정하였으나, 1930년대 일본이 내몽골 지역의 몽골인의 독립의식을 이용하여 일본 괴뢰정부(1936년 몽골독립정부, 1937년 몽골연맹자치정부 등)를 건립하자, 1937년 중국 공산당은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는 '민족독립'을 더 이상 선전하지 않고 대신 '민족자치' 원칙에 따른 연합 항일투쟁을 주장하였다.
- 한편 내몽골인들은 1933년 칭기즈칸의 3대손인 덕왕(德王, 1902~1972)의 지도로 몽골부족 대표가 모여 자치회의를 열어 내몽골의 자치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으며, 내몽골 독립파는 외몽골과의 통일을 추진하였으나, 내몽골을 중국과의 완충지대로 삼으려는 소련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중국 시베이 지방 [닝샤후이족자치구]





영하회족자치구 寧夏回族自治區

- 인구 5,986,324 명(2006년 기준)
- 1928년 성(省)이 설치된 뒤 1958년 10월 25일 닝샤 후이족자치구로 지정되었다.
- 회족[回族] · 한족(汉族) · 만주족(滿州族) 등 35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족이 자치구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한다.
- 회족은 송나라와 원나라 때부터 대거 유입된 터키인, 페르시아인, 아랍인 등의 서역 민족이었다. 이들은 이슬람교를 신봉하여 쇠고기와 양고기를 주로 먹으며, 흰색 모자를 즐겨 쓴다.